호남 정치세력 대통합 탄력…주도권 확보 전기 마련

안철수·천정배 통합…야권 재편 급물살

5갈래 세력·동교동계 등 국민의당 흡수 통합 가능성

당혹한 더민주 "원칙 훼손한 이합집산에 불과" 비판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과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 등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왼쪽부터),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 윤여준 창당준비위원장, 김한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가칭)과 국민회의(가칭)의 25일 통합 선언으로 어지럽던 야권의 신당 창당 흐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대 세력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 중심의 국민회의와 통합을 이끌어내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 상당수를 포섭할 기초를 닦았다. 이로써 호남 내 주도권을 회복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호남권 신당파는 천 의원의 국민회의 외에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이 있으며,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정동영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크게 5개 세력이다. 또 여기에 동교동계와 무소속을 선언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있다.

이미 천 의원과 박 의원, 정 전 의원이 사실상 3자 연대에 합의한 데 이어 박 전 지사와 김 전 의원도 양당 통합에 합의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5개 세력이 결국 안 의원과 합류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다 야권 통합의 촉매역할을 자임하며 더민주를 탈당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와 구(舊) 민주계 역시 중통합에 합류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통합 선언으로 국민의당은 최근 한상진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과 신구세력 간 갈등 등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호남에 근거를 둔 신당 세력들이 모두 안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 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맞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은 반전이 확실해질 경우 호남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잇따르면서 당면 현안인 교섭단체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의당에 합류한 호남 현역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나타날 수 있는 당내 갈등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다. 천 의원은 그동안 호남 현역의원들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국민회의의 전격 통합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홍걸씨를 영입한 것도 'DJ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당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천 의원마저 국민의당과 통합함으로써 더민주로서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것이다.

더민주는 겉으로는 국민회의를 포함한 신당 세력들이 자신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이합집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세를 모으기 위해 그야말로 현실적인 선택들만 하는 것 같다"며 "애당초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추진하겠다고 한 원칙을 자꾸 훼손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대통합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는 만큼 향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현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주도권 잡기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야권에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호남에서는 야권연대를 통해 여야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자 통합 합의해 놓고…꼬여버린 야권 통합 방정식

신당세력 '安-千 통합' 비판

소→중통합 시나리오 무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의 25일 통합 선언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의 회복을 꾀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다른 호남권 신당 추진세력에게는 충격파를 던졌다.

현재 호남권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국민회의 외에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 동교동계, 무소속을 선언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있다.

이번 '천·안 통합' 전, 호남권 신당 추진 세력은 '박주선·박준영·김민석 3자 연대 합의'→'천정배·박주선·정동영 3자 통합 합의'→'박준영·김민석 통합 선언' 등의 과정을 거치며 소통합 후 중통합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은 '천정배·정동영·박주선·박준영·김민석' 통합을 이끈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마지막 통합 과정에서는 동교동계는 물론 박지원 의원까지의 합류를 기대했다.

결국, 이런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대신 국민의당이 나머지 호남의 신당 세력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합이 시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세력이 이에 반발할 공산이 커 야권 통합신당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천·안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과 함께 "통합 선언 이면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란 '이면합의설'이 정치권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장 박주선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통합신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사전협의 없는 천 의원의 국민의당 전격 합류로 호남 정치 복원은 어려워졌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김민석 전 의원도 이날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천·안 통합'에 대해 "스포트라이트는 받지만 원칙과 신뢰가 없는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천 의원에게 이번 통합에 대해 묻고 싶은 게 많다"며 ▲충분히 원칙과 비전을 확인했는지 ▲그간 논의해온 파트너인 3자 연대 및 범호남통합 세력에 대해 사전 양해가 이뤄졌는지 ▲그동안 극구 거부해오던 '중도개혁'이란 표현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장해 오던 '광주물갈이'는 견지하는 것인지 ▲더민주와의 비호남 연대문제는 양측 간에 정리된 것인지 ▲가장 보수적인 안 의원과 가장 진보적인 천 의원 간의 노선갈등은 해결된 것인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이런 질문은 향후 더 큰 통합의 진전을 위해 다른 세력과 야권 지지자, 국민에게 천 의원이 책임 있게 답변할 사항"이라며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원칙과 비전을 투명하게 밝혀야 야당 바로 세우기에 기여하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통합된) 민주당은 정치공학보다는 그간 준비된 저비용사회, 새만금신경제수도, 저비용 상생정치개혁, 광주신문화수도, 한일협정개정 등 정책과 어젠다를 중심으로 통합논의와 선거준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은 심상정과 연대

범야권 총선 전략협의체 구성 합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4월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이날 통합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더민주와 정의당 대표가 회동, 범야권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안-천 통합'에 맞불을 놓은 격이 됐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심 대표와 회동하고, 심 대표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심 대표는 공직선거법(선거구협상)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문 대표는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선거법도 소수정당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문 대표는 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문 대표는 야권 혁신과 연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김종인 선대위원장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후속 논의가 잘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천 의원의 국민회의 및 정의당과의 통합·연대 협상을 공식적 논의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면서 "정의당과는 선거연합을 논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